

미래전략연구원 특별기고

악의 축을 다루는 부시 행정부 대테러전의 아이러니: 북핵문제에 대한 시사점

이근(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I

최대선이 며칠 남지 않은 미국에서 현재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아마도 부시와 케리 중 누가 미국의 대테러전 (war on terrorism)을 더 잘 수행해 낼 수 있을가에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테러전을 보다 단호하게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부시의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부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부시 행정부의 대 테러전의 현재까지 스코어를 보면 이러한 이미지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 아이러니가 발견된다. 언론이나 학자, 전문가들이 이 아이러니에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거나, 혹은 이 아이러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미래전략연구원의 지면을 이용해 짧은 분석을 하나 올리고자 한다. 이 분석은 공교롭게도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II

2002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 (axis of evil)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대테러전 (war on terrorism)은 이들 세 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카에다의 핵심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9-11 직후 이미 공격 점령하였고, 지금은 이들 세 개의 악의 축 국가 중 가장 테러의 위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던 이라크를 우선 군사적으로 공격 점령하였다.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후 이미 1년 반이 넘어섰는데, 과연 미국은 대테러전에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며칠 전인 2004년 10월 23일 차량 폭탄 테러로 이라크에서 18명의 이라크 경찰이 사망하고 6명의 미국인 병사가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이라크의 무장 그룹인 “안사르 알 수나”라는 단체가 미군을 위해 일했다는 스파이의 목을 자르는 비디오 장면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0월 22일까지 미군의 피해상황을 AP통신이 집계하였는데, 미군은 적어도 1,104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844명이 이라크의 호전적 행동 (hostile action)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국방성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특히 2003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의 종

료를 선언한 이후의 통계를 보면 미군 966명이 그 이후 사망하였고, 적어도 735명이 호전적 행동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군 이외에도 영국, 이태리, 폴란드, 스페인,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태국, 네덜란드,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군도 미군과 같은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군은 아니지만 민간인으로서 김선일씨가 테러 집단에 의해서 참수되는 사건을 경험하였다.

미군은 미군의 사망을 호전적 행동 (hostile action)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 호전적 행동에 의한 사망은 바로 테러에 의한 사망과 다름이 없다. 폭탄 차량 등의 수단이나 비정규군에 의한 비대칭 공격으로 사망한 경우이기에 때문에 비록 민간인보다 군인이 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테러에 의한 사망이라고 해야 하며 다수의 이라크 경찰과 정치인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테러에 대한 정의는 쉽지 않다). 영국의 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도 비록 알카에다의 지도급 인사 30명 정도가 9-11 이후 살해되거나 체포되었지만 약 2만명의 알카에다 전사들은 무사히 남아서 활동하고 있고, 이라크에는 약 1000명의 외국인 전사들이 미군을 겨냥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군이 이라크를 지금의 점령군의 병력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실 상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이상의 사실은 매우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아이러니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아이러니에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 아이러니는 바로 악의 축 국가 중 미국이 테러전의 명분으로 실제 행동을 옮긴 국가 (이라크)에서는 테러가 오히려 급증하였고, 특별한 행동을 옮기지 않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는 오히려 테러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호전적 행동에 의한 사망이 끊이지 않는데, 다른 악의 축 국가인 북한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는 테러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란에서도 테러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필자의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북아시아가 평화스럽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동북아시아에서 대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테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다시 이라크로 눈을 돌리게 되면 또 다른 흥미 있는 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전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세간의 의심과 달리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의 존재 증거와 관련한 미국의 공식적인 조사보고서 (ISG report)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사담 후세인 정권의 다양한 UN 안보리 결의안의 위반과 UN 제재가 해제되는 순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등의 분석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밝히질 못했다. 물론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후세인 정권이 훌륭한 정권이었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였던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의 위협으로 연결되는 핵심 고리로서 이라크는 사실 상 제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와 관련하여 이라크에 대한 제재 (sanction)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위의 두 가지 사실은 미국의 대테러전과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의 작금의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는 초보적인 결론을 내리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의 실패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시행정부의 의도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성공?”과 대비되고 있어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게 된다. 필자의 현 단계에서의 분석은 부시행정부가 탈근대적인 테러전을 더욱 탈근대적으로 만든 지역에서는 테러전이 실패하고 있고, 탈근대적인 테러전을 보다 근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테러전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III.

이미 필자가 다른 글에서 여러 번 밝혔듯이 9-11 테러는 국가가 테러의 초 국경 네트워크를 냉전 시대와 같이 관리하기 어려운 탈근대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였다. 즉 9-11 테러는 테러 집단에서 테러의 타겟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국가라는 문지기를 우회하여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일어난 현상으로서, 국가의 통제력이 이전같이 작동하지 않는 탈근대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 경우 미국의 대응 방법은 탈근대적인 네트워크의 공간을 다시 국가가 네트워크의 통로를 자신에게 모아서 문지기로 통제하는 근대적 공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탈근대적인 네트워크에 다층적으로 개입하여 복잡한 네트워크를 일일이 탈근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바로 탈근대적 공간을 근대적 공간으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강력한 후세인 정권을 대체하는 근대국가의 강력한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하여 오히려 탈근대적 네트워크의 공간을 키워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북한과 이란의 경우에는 강력한 정권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즉 근대적인 공간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정권에 대한 특별한 행동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 테러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라크 전쟁 이전의 후세인 정권이라는 근대국가가 무력에 의해서 통제 (contain)되면서 테러가 통제되었듯이 북한과 이란이라는 근대국가가 무력에 의해서 통제(contain)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테러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이들 정권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것이고, 이들 정권은 다시 미국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이중의 단계적 통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이들 국가와의 군사적인 긴장과 위협은 높은 수준에서 남기는 방법이지만 테러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IV.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은 북핵문제와 관련한 향후 미국의 전략방향과도 연결된다. 우선 미국이 북핵문제를 세계테러전 (Global War on Terrorism: GWOT)의 한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고 가정하

자. 이 경우에는, 만일 미국이 이라크전의 교훈을 강력한 테러 네트워크의 통제자인 후세인 정권을 성급히 무너뜨려 이 지역 테러의 발생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면 북한에 대한 성급한 정권붕괴를 시도하지 않을지 모른다. 오히려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테러와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강한?” 북한정권을 통제 (contain)하면서 PSI에 역점을 들지 모른다. 반면에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강력한 대체정권 수립의 실패로 판단한다면, 보다 강력하게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에 전격적으로 진주하여 강력한 대체 통제세력을 형성하려 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인명피해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테러가 북한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현재까지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후자보다는 PSI와 같은 전자의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과 파키스탄과의 커넥션과 관련한 미국의 판단여부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반면 북핵문제를 테러의 위협에 더해서 전통적인 위협으로 같이 보고 있다고 할 경우, 북한정권이 급속하게 통제력을 잃게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핵을 제거하고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급속하게 통제력을 잃게 되면 이는 테러의 확산으로 연결될지 모르는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현재의 전체주의적인 정권으로 남겨둔다면 전통적인 위협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의 위협과 전통적인 위협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북핵을 제거하면서 북한 정권을 점진적으로 민주화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이상이 부시 행정부 대테러전의 아이러니와 북핵문제에 대한 시사점이다. 2004년 11월 2일 이후 들어서는 미국 행정부가 대테러전과 북핵문제를 이렇게 읽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